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 참말로 나는 허공중에 있구나

#### 법신 ①

이 대목이 뒷이나 하면 여래, 여래님, 부처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뒷이나 부처란 자체가 뒷이나 여래님이란 자체가 뒷이나 이겁니다. 무엇을 여래라 하나 방편적으로 말씀한 건데, 여래는 만약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다 이 대목이 거든요. 실로 알고 보면 우리의 몸뚱어리도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는 거라요.

왜 그렇노? 내가 이 몸이 집에서 설법 들으러 오고 또 설법을 들으면 가고 이런 건데 왜 없느냐 이런 말이 되었는데, 가고 앉다는 것은 물 위에 뜬 거품 한가지로 갔다 왔다 이래 하는 것이지 실로 거품인 그 물 자체, 그 자체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 대목까지 우리가 이걸 납득을 하려면 상당한 설법 시간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 그 때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참말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들어놓으면 꼭 거저말 같달 말이지요. 허황된 말만 같아. 뻔히 가고 오고 하는데 왜 없느냐 이것이 거든.

그러니까 제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뚱어리는 실로 있어도 이것이 부정물이다. 부정물인 동시에 자꾸 변하는 거다 이거부터 머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서는 진짜 나.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그놈,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그놈, 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그놈, 맛을 시키는 그놈, 이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걸 알아야 되요.

실은 그것인데 그걸 다 여러분들이 모를 따름입니다. 전부 모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꼬집고 다니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나 이 헛것은 물거품처럼 헛것을 나무어서 사람의 몸이다 사람의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또 부처님은 설혹 그렇다 하기로니 우리는 더욱 이해가 안가. 내가 아침에 여기서 저기까지 갔는데 부엌에도 가고 사랑에도 가고 마당에도 나가고 이리 했는데 왜 가고 오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이해가 통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는 뒷을 뜻하는 거나 하면 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

니고 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적으로. 그런데 이적인 그 자리는 우리의 법신, 이거는 색신인데 우리의 법신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말이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라. 그러하니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는 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는 해.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하는는 한다 할지라도 이거 전부 다 거저놓음이거든요. 그걸 갖다 확실히 딱 알아버리면은 이것이 납득이 딱 가는 겁니다.

그러하니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건데 이거 벌써 며칠 입니까? 사흘인가 나흘째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똑딱하고 집어 넘겨버렸으면 그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그래서 이리 잔소리를 하

“

우리의 몸뚱어리는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눕는 것도 없다

법신자리는 죽는 것 아니다 이 도리만 알면 헛것인 이 인생을 굴리는데 참말로 자신이 생긴다

”

는 건데 그러면 결국 말이지요. 우리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어. 그 자리를 우리는 캐내려는 거여. 그러면 그 자리가 다른 데 있느냐 하면 다른 데 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그러하니 가는 것이 없으니 죽는 것도 없어. 오는 것이 없으니 나는 것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낚기 때문에 색신이란 걸, 어머니의 뱃속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색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낳아도 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지혜가 날카로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나도 나는 듯한 것이고 가도 가는 듯한 것이로구나. 다시 말해서 죽는 걸 간다 이래 본다면은 죽는 듯한 것이지 참말로 죽음이 아니구나. 왜 그러냐. 나는 듯한 것은 색신, 이것은 인연에 따라서 이 색신을 나무었다 뿐이지 참말

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나긴 뭘냐? 날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대목이 대단히 어려워요. 물론 또 여러분들 슬기가 날카로운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 그래서 나이도 먹어. 늙어 가. 이런데 난 것이 없다 하니 말이지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또 근사하게 맞거든요. 맞지만은 사실은 나도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를 굴리는, 여러분의 몸뚱이를 쓰는 그 자리, 날 건 어디 있느냐 안 날 건 어디 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슬기자리. 이거 좀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헛것이 나서 꽃이 피듯이, 헛것이 나서 헛물거품이 나서 일로절로 돌아다니다가 물거품이 사그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로 여러분의 몸뚱이가 세상에 낳다고 가정할지라도 무엇이 낳다 말입니까? 그것이 전부 실답지 않은 헛물이 난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늙어서 죽는다 합시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건 헛것이 사그라지는 것이지. 참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가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말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이 도리만 알면 인생을 굴리는데, 헛것인 이 인생을 굴리는데 참말로 자신이 생긴다. 자신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이래요. 늙으면 늙는 대로 재미가 있고 젊으면 젊은 대로 재미가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재미가 있고, 전부 헛것이거든요. 여자는 여자대로 재미가 있어.

그러나 그만 헛거, 이거를 갖다가, 변하고 가는 거 헛거, 이거를 내라 이래 해버리면은 아이고 나는 늙는다 아이고 나는 남자 몸이로구나 아이고 나는 여자 몸이로구나 나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 야단이나. 하하하. 그러나 참말로 사람이란 건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져도 나도 나는 것이 아니다. 그 법신자리는 날 것이 없어. 그러나 색신을 갖다가 거품처럼 나무었어. 이 도리를 알아. 죽을 때도 내가 헛거 부정물인 이거, 우리의 몸뚱어리는 부정물이거든요. 그러하니 부정물인 것이 없어졌다 할 뿐이지 죽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란 참말로 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참말로 내, 이것은 말이 지 그만 허공중에 우뚝하니 그대로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어째 재미가 안 나겠는가. 참말로 재미가 나.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일체중생과 함께 '수희공덕' 해야 보살

#### ⑤ 수희공덕(隨喜功德)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一拜) 六方如來舒舌證專稱名號至西方 到彼華開闢妙法 地地顯行自然彰 十方一切諸衆生 二乘有學及無學 一切如來與菩薩 所有功德皆隨喜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참회와 반성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남의 덕의 좋은 것을 잘 알게 된다. 그 덕을 알아보고, 이를 기뻐하고, 나는 아직 못 할망정 그는 위대한 덕행(德行)을 닦는다. 얼마나 거룩한 일이나, 하는 것을 수희공덕(隨喜功德)이라고 한다.

수희(隨喜)는 남의 좋은 일, 착한 일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편이나 하면, 남의 잘 하는 일을 보고 별로 기뻐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깊이 자기 반성을 하여 스스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를 보충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다른 생활을 해 나가기야 되겠다.

남의 덕행을 더불어 좋아한다는 것은 이룰테면 자기에게 있었던 본능적인 질투심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남의 일을 괜히 좋아할 필요는 없다고 아랫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질투심이란 동물의 야욕과 야수의 발로로서 자연스런 본능이다. 우리는 이 질투심이라는 본능을 망상(妄想)이라고 단정한다. 우리는 이런 망상에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질투의 아성을 무너트리고 활짝 열어 쬐던 공정(公正)한 빈터에 다른 사람의 위대한 덕행이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를 반가이 맞이하고 기뻐한다. 이런 것이 또한 위대한 일이다.

어느 민족이건 개인이건 할 것 없이 누가 인류의 대 사회(大社會)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맞닿는 좋은 일을 하였다 할 것 같으면 비록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자기 일인양 기뻐하고 환영해야 한다.

복지국가(福祉國家)라고 하고, 건전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란 것은 개인 상호간에 사회의 각계 각층에 걸쳐 수희(隨喜)가 있어야 되며, 수희공덕하는 사회와 가정과 국가라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리하여 우리가 과연 수희공덕하는 복지국가를 이룩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국위라는 것이 바로 서고 우리는

세계 방방 앞에 나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느 경우에도 누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반성하고 나는 비록 그런 일을 지금은 못 할망정 어떤 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를 따라 더불어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공명하는 것을 물론 이르는 것이지만, 더 실질적으로 말하여 물질로나, 자기의 노력으로나 정신적인 공명도에 맞추어 그를 위해 협력해 주고 좋은 공덕을 성취하도록 한데 아울러 합세해 주는 것이어야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사회에서든 혹은 국제사회에 있어서나 어떤 사람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 이를 발견하여 협력을 아끼지 말 것이며,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뒤를 받들어 주어야만 참다운 수희공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남의 좋은 일 착한 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수희공덕

질투심이란 동물의 야욕과 야수의 발로로 자연스런 본능 허나 이는 망상과 다르지 않다

공명·협력, 공덕을 수희해야 복지국가로 인류명화에 기여

”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캐어보면 자기의 아상(我執)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가 한 일의 공로에 집착하는 더러운 망상에 안 된다. 누가 한 일인데 간에 좋은 일이면 찬동해야 한다. '육방(六方)의 여래가 서설증(舒舌證)을 한다'는 대목으로 시작하는데 이에는 좀 얘기가 있어야겠다.

아미타불께서 '우리는 보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대자대비와 사랑의 빛을 전 인류에게 주어야겠다. 전 인류는 사랑의 빛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의 생명을 우리는 더불어 향유하고 또 이를 건설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동서남북, 상하의 육방에서 모든 여래가, 그러니까 구세주와 같은, 인류의 지도자로서의 의식이 뚜렷이 선, 그러한 어른들이 서설증

(舒舌證)으로써 증명을 한다.

아미타불의 말씀이 옳다는 것, 아미타불이 그와 같이 공덕을 일일이 들어 말씀하는 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육방 여래가 모두 혀를 내달고 증거를 낸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말씀에 대하여 부처님들이 수희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말씀은 내가 말하고자 하던 바와 같다고 증명을 했는데 그것은 '오로지 명호(名號)를 부르지만 하면 서방에 이른다'는 것이다. 아미타불만이 자꾸 뇌고 있으면 틀림없이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저기 꽃이 피는 데에 이르러 묘법(妙法)을 듣는다', 극락세계에서 무릇 훌륭한 스승과 벗들과 진리삼매(眞理三昧)에 노닐 수 있고 '자타(自他)가 더불어 있는 십지(十地)의 원과 덕행이 스스로 나타낸다.'

이 십지에서는 자기와 남의 구별이 없어도, 온갖 사람이 다 제가끔의 가진 바 덕성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어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뇌면 극락세계로 가고, 극락세계에 가면 이와같은 십지에 이르러 자타를 함께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모든 중생과 성문승(聲聞乘)과 연각승(緣覺乘)과 학생과 학자'와 이승(二乘)은 성문승과 연각승인데 이룰테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자기 공부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학(有學)은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 즉 학생, 무학(無學)은 배울 것을 다 배워 이제는 배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학자(學者), 박사(博士)하는 따위의 사람들.

'그밖에 모든 여래와 보살들이 모두 다 가진 바 공덕(功徳)을 서로 수희한다.' 보살(菩薩)은 여래의 뒤를 이어나갈 위대한 성자(聖者). 우리는 이와 같은 바의 수희공덕하는 생활을 통해 자타를 가리지 않는, 일체 중생과 더불어 유익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대사회 건설의 보람찬 사업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 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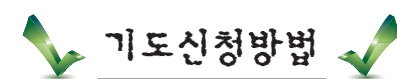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 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료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괴로웠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